

1.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미국, 칠레, 페루 임상연구 효과적(AstraZeneca vaccine safe and effective in U.S., Chile, Peru trials)

생성기관

Reuters

원문 작성일

2021-3-22

원문 링크

<https://www.reuters.com/article/us-health-coronavirus-astrazeneca-usa/astrazeneca-vaccine-safe-and-effective-in-new-trial-data-idUSKBN2BE0NJ>

- 아스트라제네카 미국 등 임상결과 효과적, 혈전증 위험 높지 않음
-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미국, 칠레, 페루의 대규모 임상실험에서 79% 예방 효과로 이전 임상보다 효과적임 발표
 - 아스트라제네카사는 월요일에 3만2천명 이상의 전연령대 지원자를 대상으로 한 임상실험에서 이 백신은 심각한 중증질환 발현과 입원을 예방하는데 100% 효과적이었음을 발표함
 - 초기 임상연구 데이터의 확실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었으나, 이 연구결과는 영국인에게 신뢰를 줄 것임
- 희귀 혈전증이 보고된 후 유럽연합에서 사용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백신이 혈전증 위험을 높이지 않음을 확인
 - 아스트라제네카는 미국에서 독립적 안전성위원회에서 혈전증과 희귀 대뇌 정맥혈전증(CVST)에 대해 세부 검사를 실시
 - 신경과 전문의, 패널들은 최소 1회 백신접종자 21,583명 참가자들 사이에서 혈전증이나 혈전증 증상 사례 위험은 증가하지 않았음
 - 옥스퍼드 대학 사라 길버트 교수(Sarah Gilbert)는 미국 승인 신청을 위한 데이터를 준비 예정으로 몇 주 소요 예정이라고 BBC 인터뷰에서 발언

2. 연구 결과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혈전증 위험이 높지 않음 (Studie findet kein höheres Thrombose-Risiko bei AstraZeneca-Impfstoff)

생성기관
Die Zeit
원문 작성일
2021-3-22
원문 링크
https://www.zeit.de/wissen/gesundheit/2021-03/corona-impfstoff-astrazeneca-thrombose-nebenwirkung

-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미국 등 3개국 임상결과
 - 미국, 칠레, 페루에서의 새로운 임상연구 결과 AstraZeneca 백신은 이전 임상보다 더 효과적이며 혈전증 위험이 더 높지 않았음
 - AstraZeneca 백신은 50 개국 이상에서 승인되었지만 아직 미국에서 승인되지 않았음, 제조사는 조사 결과를 미국 FDA에 제출, 긴급 승인을 협의할 예정
 - 연구결과 입원이 필요한 심각한 질병에 100% 예방 효과와 바이러스에 대한 전반적인 79% 예방 효과를 보임
 - 이전 연구의 소규모 데이터는 고령층 효과 논란 등 2등급이라는 인상을 줌
 - 3개국 임상에서 총 32,500명이 조사에 참여, 20,000명 이상이 백신 접종,
 - 3상 연구에서 65세 이상에게 80% 예방 효과, 백신접종 그룹이 대조군보다 80% 더 적게 질병이 발생했음을 의미
 - 제조사는 심각한 중증 발현에서 모든 연령대에 걸친 100% 효과를 발표함
 - 광범위한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소위 부비동 혈전증이라고 하는 뇌의 혈전 위험이 더 높지 않음도 밝혀짐
 - 영국 보건부 장관, 매트 핸콕(Matt Hancock)은 "옥스포드/아스트라제네카 백신에 대한 미국 조사 결과는 백신이 안전하고 매우 효과적이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준다고 트위터함 주장
 - 아스트라제네카사는 미국 식품의약청에 긴급 승인 신청할 예정임을 발표

3. 아스트라제네카 : 신뢰도 저감 - 독일인 55%가 안전하지 않은 것으로 분류 (Astrazeneca: Vertrauen gesunken - 55 Prozent der Deutschen stufen Vakzin als unsicher ein)

생성기관

Frankfurter Allgemeine

원문 작성일

2021-3-22

원문 링크

<https://www.fr.de/politik/astrazeneca-thrombose-ursache-gegenmittel-impfstoff-corona-impfung-gesundheit-vertrauen-zr-90242674.html>

□ 영국 Yougov 설문 조사 결과

-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혈전증 논란이후 유럽국가에서 신뢰도가 크게 감소됨
 - 영국 연구소 Yougov 설문 조사 결과 독일, 프랑스, 스페인, 이탈리아의 대다수 사람들이 백신이 안전하지 않다고 생각
 - 독일에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불신 비율이 한달만에 15% 증가, 55%에 달함, 독일 시민 32%만이 안전하다고 평가, 프랑스는 61%가 안전하지 않다 판단,
 - 특히 스페인과 이탈리아에서 불신이 급격히 증가하여 각기 27% 증가, 두 국가 모두 40% 미만이 안전하다고 확신함

4. 유럽연합 당분간 가난한 나라를 위한 백신은 없음 (Europäische Union, Vorerst kein Impfstoff für ärmere Länder)

생성기관

Taggesschau

원문 작성일

2021-3-21

원문 링크

<https://www.taggesschau.de/ausland/europa/eu-impfstoff-109.html>

- 유럽연합 회원국 우선 백신공급, 빈곤국과 공유는 차후에
- 우슬라 폰데어라이엔(Ursula von der Leyen) 집행위원장은 유럽연합(EU)에서 가난한 나라로의 코로나 백신 공급을 잠정적으로 중단하겠다고 발표
 - 우선 회원국들이 자체적으로 백신을 접종해야 한다는 압력이 커지고 있음,
 - EU는 이미 빈곤국 백신 공급을 위해 22억 유로를 지원, Covax는 이미 52개국에 3천만회 백신을 전달함
 - EU는 유럽내 상황이 개선될 경우 다른 국가와 백신을 공유하는 추가 메커니즘을 시작할 것이라 주장
- 세계보건기구(WHO)는 빈곤국 코로나 대응 위해 부유국의 백신 기부 요청
 - 마크롱(Macron) 프랑스 대통령은 부유한 국가들이 가능한한 백신의 4~5%를 포기해야하는 이니셔티브를 옹호
 - 유럽연합에서는 특히 유럽의 이웃, 서부 발칸 반도 및 동부 유럽에 대해서 지원 필요성이 논의되고 있음
 - 미하엘 로스(Michael Roth) 외무부 EU 담당 국무 장관은 연대의 표시로 EU가 서부 발칸 지역에 백신을 보내야 한다고 요청함
 - 미국 바이든(Biden) 대통령은 1월에 대통령 교체후 Covax 프로그램에 가입
 - 코박스는 개발 도상국 인구의 약 20%에게 약 13억 도스 백신 접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올해 68억 달러가 필요,
 - WHO는 지난 2월 코로나 팬데믹에 대한 일반적인 의료대응에 총 270억 달러가 부족하다고 발표, 백신외에 연구, 테스트 및 진단도 포함됨
- 5. "우리는 스푸트니크V가 절대적으로 필요하지 않습니다" 브르통(Breton) EU 집행위원 비판을 받음 ("Wir haben absolut keinen Bedarf an Sputnik V" EU-Kommissar Breton erntet auch Kritik)

생성기관

euronews

원문 작성일

2021-3-22

원문 링크

<https://de.euronews.com/2021/03/22/wir-haben-absolut-keinen-bedarf-an-sputnik-v-eu-kommissar-breton-in-der-kritik>

□ 브르통(Breton) EU 집행위원, 유럽 백신에 우선 순위 부여

- 유럽연합 백신위원회를 이끄는 티에리 브르통(Thierry Breton) EU 집행위원은 "스푸트니크 V가 절대적으로 필요하지 않다고 발언
 - 유럽 백신으로도 3억 ~ 3억5천만 도스 접종하여 7월 14일까지 대륙 전체에 걸쳐 "집단면역"을 달성할 수 있다 주장
 - 유럽에서 러시아 백신 생산에 개방적임에도 불구하고, 유럽 백신에 우선 순위를 부여해야 한다고 입장임
 - 현재 Sputnik V는 EMA에서 검토중이지만 아직 승인되지 않았지만, 헝가리, 슬로바키아, 체코 및 이탈리아는 이미 백신을 사용 중이거나 전국적으로 자체적으로 사용하기를 희망함
 - 러시아는 브르통(Breton)의 편견이라 비판, EU에서 승인된 일부 백신보다 Sputnik V는 더 효과적이고 안전하며, 유럽인들은 EU가 아직 공급하지 않는 안전하고 효율적인 백신을 희망할 것이라 주장

6. 코로나 백신 전쟁? 유럽연합 아스트라제네카와 영국 위협 - 수출 중단은 부메랑이 될 수 있음 (Corona-„Impfstoff-Krieg“? EU droht Astrazeneca und Großbritannien - Export-Stopp könnte zum Bumerang werden)

생성기관

Merkur

원문 작성일

2021-3-22

원문 링크

<https://www.merkur.de/politik/coronavirus-impfstoff-eu-drohung-grossbritannien-von-der-ley-en-astrazeneca-biontech-johnson-export-stopp-90255522.html>

□ EU와 영국간 백신 수출중단 관련 논쟁

- 백신 공급부족을 해결하기 위한 EU 우슬라 폰테어라이엔(Ursula von der Leyen) 집행위원장의 잠정 수출금지 조치는 주로 Astrazeneca 백신을 의미,
 - 유럽 자체의 공급부족에도 2월 1일 이후 EU에서 최소 4,100만 도스의 백신이 수출, 이중 1천만 도스는 영국으로 수출됨
 - Astrazeneca는 1분기 합의 수량의 30% 미만을 유럽연합에 납품, 계약에 따르면 EU는 영국 생산 Astrazeneca 백신을 받아야 하는데 유럽이 영국에 백신공급하면서 영국으로부터 아무것도 얻지 못했음
 - 유럽 시민들에게 받는 것이 없는데 왜 우리는 수백만 도스 백신을 수출하고 있는지 설명하기 어려움, 최소한 비례적이고 상호적이어야 한다고 주장
 - 아스트라제네카에 대해 다른 국가로 배송하기 전에 먼저 유럽과의 계약을 이행할 것을 촉구함

- 유럽연합의 수출금지에 대해 영국 보리스 존슨(Boris Johnson) 총리는 "백신 전쟁"에 대해 경고(Financial Times), 벤 월리스(Ben Wallace) 국방장관은 공동 대응을 촉구함(Sky News)
 - 독일 연구기반 제약기업협회도 전체 물류체인이 붕괴될 수 있기 때문에 EU의 수출 금지에 반대함(Ärztezeitung)
 - EU의 수출 중단은 영국에서 공급하는 Biontech/Pfizer 백신의 핵심 재료를 공급받지 못하여 백신 생산이 오히려 줄어들 수 있음을 의미

- 유럽연합 Mairead McGuinness 집행위원은 EU가 영국으로의 백신 수출을 중단하려는 의도가 전혀 없으며 개방성과 투명성, 상호 비례성에 관한 것이라 주장(BBC 인터뷰)
 - 이번 주 목요일, 금요일에 온라인으로 계획중인 EU 정상회의에서 백신은 주요 이슈임

7. 코로나 정상회의 전 연구결과 : 백신 접종과 따뜻한 날씨에도 3차 유행에서 우리를 구하지 못함 (Studie vor Corona-Gipfel: Selbst Impfungen und warmes Wetter retten uns nicht vor der dritten Welle)

생성기관

Business Insider

원문 작성일

2021-3-22

원문 링크

<https://www.businessinsider.de/politik/deutschland/studie-vor-corona-gipfel-selbst-impfung-und-warmes-wetter-retten-uns-nicht-vor-der-dritten-welle/>

- 베를린 공대와 베를린 주세(Zuse)연구소 연구결과: 독일 정상회의 발표 예정
- 베를린 공대와 베를린 주세(Zuse)연구소 연구원들은 독일의 3차 유행이 작년 연말 2차 유행보다 더 어려울 것을 예상
 - 베를린공대(TU Berlin) 카이 나겔(Kai Nagel) 교수와 Zuse Institute Berlin 크리스토프 슈테(Christof Schütte) 교수 연구팀의 연구결과 코로나 변이 B.1.1.7의 확산으로 인해 백신 접종과 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제 3의 유행을 예방할 충분한 효과가 없다고 경고
 - 4월 이후 더운 계절에 기대되는 완충 효과를 모델에서 고려되었으며 이것이 없으면 예상되는 제 3차 확산은 두 배가 될 것이라고 주장
 - 현재 백신접종률이 계속되면 인구의 15%가 4월 중순에 최소 1회 백신 접종하며 R-값이 약 15% 저감, B.1.1.7로 인한 R-값 증가 35-70%에 비해 적음
- 연구팀은 B.1.1.7 변이 확산 최소화, 사적 방문, 직장내 학교내 보호되지 않는 (마스크를 미착용한) 접촉을 더 많이 축소하여야 함을 주장
 - 봉쇄시행한 영국의 경우 백신 접종전에도 금지 조치로 B.1.1.7의 확산이 감소
 - 향후 외부에서의 개인 접촉은 자가 테스트, 백신접종 또는 마스크 착용으로 보호되는 경우에만 허용되어야한다고 주장
 - 또한 직장내 마스크 착용, 재택 근무와 교체 근무로 사무실 직원 수 감축, 학교에 대해서는 마스크 착용, 신속 테스트 및 교차 수업을 제안함

8. 코로나 뉴스 라이브 블록(Live Blog Corona-Pandemie)

생성기관
Taggesschau
원문 작성일
2021-3-22
원문 링크
https://www.taggesschau.de/newsticker/liveblog-coronavirus-montag-185.html#WHONeuinfektionen-durch-geringe-Impfraten-und-Oeffnungen

□ 코로나 뉴스 라이브 블록(Live Blog Corona-Pandemie)

- 일반 봉쇄 4월 18일까지 연장(Genereller Lockdown soll bis 18. April weitergehen)
 - 정상회담에서 향후 코로나 테스트 및 격리 규정 등에 대한 최종 결정은 아직 협의중이지만 기존 봉쇄 조치는 4월 18일까지 연장되는 것으로 알려짐
 - 앙겔라 메르켈 총리는 여행자를 위한 테스트 및 격리 규정, 부활절 기간 접촉 제한 완화, 발병률이 높은 지역의 야간 통금 도입 등 논의 희망
- 바이에른 쇠더(Söder) 주지사는 지역 단위 비상제동 주장(Söder beharrt bei "Notbremse" auf Landkreis-Ebene)
 - 인구 10만명당 확진자 지수 7일간 100인 이상시 "비상 제동(Notbremse)"이 주 전체가 아니고 해당 지역(Landkreis) 수준에서 적용되어야 한다 주장
 - 이는 함부르크 페터 쉐트셔(Peter Tschentscher)의 본래 제안과는 모순되지만, 쇠더 주지사는 발병률이 50-100인 지역은 계속 개방할 예정
- 러시아 푸틴 대통령은 내일(화요일) 스푸트니크V 백신 접종 희망 (Putin will sich morgen mit Sputnik V impfen lassen)
 - 티에리 브르통(Thierry Breton) EU 집행위원의 러시아 백신 거부에 대해 푸틴은 우리는 누구에게도 강요하지 않는다고 대응
 - Sputnik V 백신은 현재 54 개국에서 승인되었으며 EMA는 3월초 백신 승인

을 위한 롤링 프로세스를 시작

- 러시아 보건부에 따르면 EMA 전문가들은 4월 10일에 러시아 Sputnik V 백신에 대한 임상 연구를 심의할 것으로 예상

○ **주정부에 충분한 코로나 테스트 제공 (Länder haben Zugriff auf "ausreichend" Coronatests)**

- 테스트 물류 (Testlogistik) 테스트포스는 3월, 4월에 1억3천만개 이상 자가 테스트 제공 예정
- 전문가를 통한 신속(항원) 테스트도 3월만에 1억 5천만개를 주문, 총 사용 가능한 옵션은 거의 9억개 테스트에 달함
- 주정부는 주문 및 배포를 담당하며, 독일내 모든 사람이 매주 최소 한번의 무료 신속 테스트를 수행할 수 있음

○ **슬로바키아 부총리 사임 (Slowakischer Vize- Regierungschef tritt zurück)**

- 리차드 술릭(Richard Sulik) 경제장관겸 부총리는 스푸트니크V 백신 비밀 거래로 인한 연정 파트너간 분쟁 해결을 위해 사임함
- 슬로바키아 이고르 마토비치(Igor Matovic) 총리는 4개 연정 파트너간 협의 없이 러시아산 '스푸트니크 V' 백신 200만회분을 주문하여 논란이 일어났음
- 술릭(Sulik)이 소속된 자유당과 연대(SaS)당은 친서방적 지향성에 의문을 제기한 총리에게 사임을 요구, 이들은 러시아 백신에 대한 EMA 승인을 기다릴 것을 요청하였음
- 마토비치(Matovic) 총리는 일요일 저녁에 술릭(Sulik)이 사임하면 본인도 사임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선언함

○ **연방정부/주정부 코로나 정상회의에서 협상 중단 (Unterbrechung der Bund-Länder-Beratungen)**

- 주지사들과 연방 정부는 확진자 증가를 고려, 부활절 기간동안 어떤 여행이 가능해야 하는지에 대해 합의를 도출하지 못함
- 해안지역 주지사들이 자국에서 "저접촉 여행(kontaktarme Reisen)"을 고집하여 주지사간에 사전 합의가 없었음

9. 부활절 기간 동안 강력한 봉쇄 - 새로운 코로나 의결 (Harter Shutdown über Ostern-Das sind die neuen Corona-Beschlüsse)

생성기관

ZDF

원문 작성일

2021-3-23

원문 링크

<https://www.zdf.de/nachrichten/politik/corona-gipfel-beschluesse-notbremse-ostern-100.html?fbclid=IwAR0cer12Vwv03XjP4miZvGPg0kgNhMXdL8fgqz4vN59zgYLGbsMYRJ0klm8>

□ 연방/주정부 의결 사항 개요

- 부활절 연휴기간(4월 1일부터 4월 5일) 봉쇄 강화
 - 공공장소 집단 모임 금지
 - 4월 3일만 슈퍼마켓 (부분적으로)개점 가능
 - 이미 개점한 야외 취식 가능한 레스토랑은 폐점해야함
 - 사적인 모임은 2가구 최대 5명만 가능 (14세 미만은 예외)
 - 부활절기간동안 종교집회는 온라인상으로만 가능

- 3일연속으로 7일 확진자 지수가 100이상인 지역은 3월 7일까지 적용되었던 코로나 강화규칙이 적용
 - 비필수적인 소매점 폐점
 - 사적모임은 1가구 + 1명
 - (야외 취사) 식당 폐점
 - 이발소는 개점가능

- 3일연속 7일 확진자 지수가 100이상인 지역은 또한 외출 제한과 더 강화된 접촉 제한 적용
 - 거리두기와 마스크착용이 어려운 곳은 최신 신속검사가 의무
 - 개인소유 자동차 내에서도 가족외 인원은 마스크 착용 의무

- 여행객에 대한 코로나 규칙 강화
 - 반드시 필수적인 목적의 여행만 가능
 - 해외 위험지역에서 돌아오는 사람은 10일 격리, 5일후 단축가능
 - 향후 항공사에게도 책임이 있으며, 여행지에서 돌아오는 왕복편탑승자 모두를 대상으로 탑승전에 코로나 검사 실시해야함
 - 향후 독일로 돌아오는 비행편에 탑승하기 위해서는 무조건 코로나 검사를 해야하만 탑승할 수 있음 (최근 논란된 마요르카 경우도 포함)

- 고용주들은 고용자들이 재택근무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안된다면 필수적으로 1주일에 한번 테스트, 가능하다면 두번 테스트를 제공해야 함

- 학교/탁아소에서 근로자들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주 2회 코로나 검사를 실시하는 것이 현재 목표

- 특정 지역에서 코로나 발생률이 낮아진다면 철저한 예방수칙과 계획아래 한시적으로 모델 프로젝트를 시행할 수 있음

- 전국 병원의 경제적인 상황을 안정시킬 예정

- 봉쇄로 영향을 받은 가정에 추가적인 지원

- 양로원과 실버타운에 지속적인 위생수칙과 코로나검사 필요, 2차 백신 접종 후 2주가 지난 사람을 대상으로 방문 자격 수여 가능

- 다음 코로나 정상회의는 4월 12일로 예정